

새로 나온 책

### 4차산업혁명 세대,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컴퓨터와 로봇이 사람이 했던 일을 대체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AI 시대로 대표될 4차산업혁명을 살아갈 세대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과정에 포함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MIT 미디어랩의 미첼 레스닉 교수는 창의력을 위한 학습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사회의 불확실성과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미첼 레스닉의 평생유치원

미첼 레스닉 지음/최두환 옮김 /다산 사이언스

창의성에 관한 대중적 이야기는 종종 "아하!" 순간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르키메데스는 욕조에서 불규칙한 모양의 물체를 물속에 담그고 넘치는 물의 양을 측정하면 그 물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거다(Eureka!)"라고 외쳤다.

우리는 코딩이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유창함과 표현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글쓰기를 배울 때 단지 철자법, 문법, 구두점만을 배운다면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전하고 아이디어를 소통하는 방법이다.

코딩도 마찬가지다. 코딩의 기본적인 문법과 구두점을 배우기에는 퍼즐이 좋

다. 하지만 이렇게해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 십자말풀이를 통해 글쓰기를 배운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으로 철자법과 어휘력에 관한 지식을 재미있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좋은 작가가 되거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거나, 자기 아이디어를 유창하게 표현하게 돕지는 않는다. (p.116)

레스닉 교수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학습 경험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소개한다. 그는 이제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가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창의성은 학습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354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ki1@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지음/위즈덤 하우스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소송 대처 요령까지를 총망라한 '생활법률 상식사전'이 다시 돌아왔다. 전면 개정 2판은 실생활과 밀접한 '리벤지 포르노', '무고죄', '대리운전' 등의 문제들을 새로운 사례들과 함께 담았다. 저자는 20년 간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초등학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과 함께 사례 중심적인 생활법률 지식을 소개한다. 법원에 가기 전 꼭 한번 읽어보자. **424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은근 짜릿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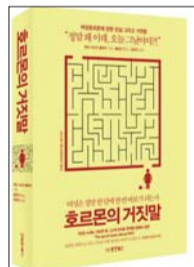
숯카이 지음/창비



네이버 도전만화에서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신예작가 숯카이의 첫 번째 만화 '은근 짜릿해'의 단행본이다. 작가는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77개의 짜릿한 순간들을 섬세하고 다정한 시선으로 캐치하여 신인답지 않은 능숙한 솜씨로 이야기를 구성했다. 20~30대 싱글 여성들의 소박한 일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마스다 미리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보다 한층 명랑하며 긍정적이다. **428쪽. 18000원.** /김현정 기자

호르몬의 거짓말

로빈 스타인 델루카 지음/황금진 옮김/동양북스



2016년 130만 조회수를 넘기고 22개 언어로 번역되면서 큰 화제가 된 TED 강연 '생리전증후군에 관한 희소식'을 토대로 완성됐다. '호르몬의 거짓말'은 15년 동안 '여성의 건강과 젠더 불평등'에 대해 연구한 심리학 박사, 로빈 스타인 델루카의 오랜 연구를 집대성한 책이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과학 정보'가 사실은 '통념'이나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해냈다. **448쪽. 17500원**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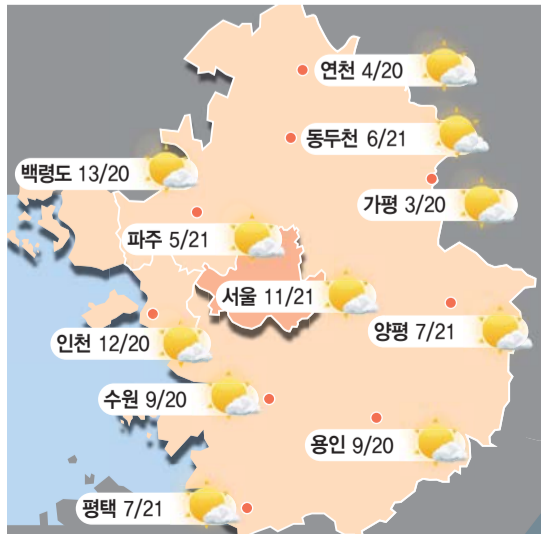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3 | 해질 / 18:06

10월 8일 (월)  
음력 : 8월 29일

수도권 날씨  
**11 ~ 2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일반고 학생, 학종 사교육 더 받아”

〈학생부 종합전형〉

자사고, 학교 프로그램으로 준비  
수시 사교육도 일반고가 더 받아  
일반고도 정시·수시 학교 나눠

사교육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학생 비율이 자립형사립고(자사고)보다 일반고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사고의 경우 학교에서 학종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사고 학생 10명 중 4명은 고1부터 대입 수시모집 학종전형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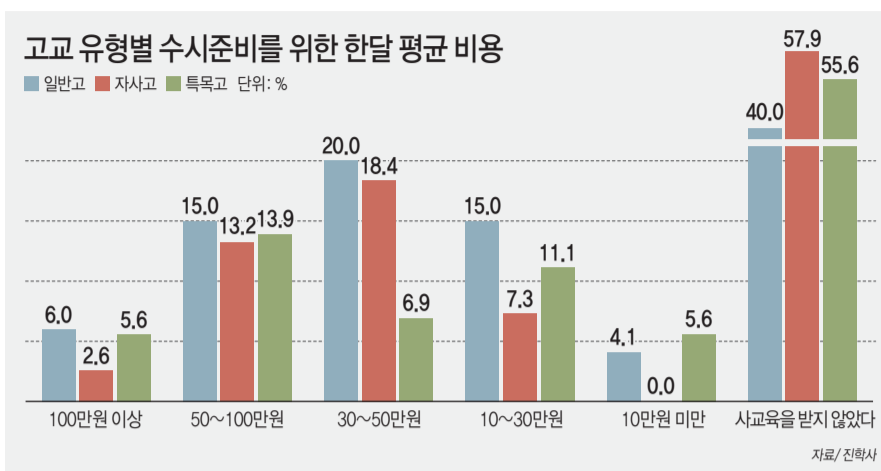
7일 진학사가 고3 회원 1711명을 대상으로 '고교 유형별 수시준비'에 관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인 99%(1694명)가 올해 수시모집에 지원했다고 답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열심히 준비한 전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9%는 학종을 꼽았다. 이어 학생부 교과전형(30.4%)이었다. 학종 준비 비율을 보면, 고교유형별 자사고(60.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일반고(52.9%), 특목고(47.9%) 순이었다.

자사고는 특히 재학생 중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했다는 비율이 7.9%로 타 고교유형과 비교해 매우 적은 반면, 논술전형에 지원했다는 비율은 28.9%로 특목고나 일반고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자사고 내신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사고 학생들은 특히 수시모집 전형 준비를 언제부터 하느냐는 질문에 고1부터(39.5%)라는 답변이 월등히 많았다. 특목고(38%), 일반고(32%)는 고3부터 준비했다는 비율이 가장 많아 대비된다.

학종이나 학생부교과전형을 주로하는 수시전형을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비율에서도 자사고가 눈에 띄었다. 수시전형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자료/진학사

무엇인지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자사고는 '학교 내 운영 프로그램'(41%)이 가장 많았고, 특목고는 '학교 선생님 지도'(32%), '스스로 준비'(32%) 순, 일반고는 '학교 선생님 지도'(36%)가 많았다. 자사고가 다른 고교 유형과 비교해 수시모집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이 특화된 것으로 보인다.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장소로 학교를 꼽은 비율도 자사고(57.9%)가 가장 높았고, 일반고(51.8%), 특목고(46.5%) 순이었다.

수시모집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에서도 자사고(57.9%)가 가장 많았고, 특목고(55.6%), 일반고(40%) 순이었다. 수시전형을 위한 사교육이 주로 학종전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고 재학생들의 사교육 비율이 자사고나 특목고보다 많은 셈이다. 사교육 금액은 특목고(13.9%, 50~100만원)가 가장 높았고, 일반고(20%), 자사고(18.4%)는 각각 30~50만원을 쓴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신이 재학 중인 고교 유형이 수시 전형 준비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특목고(69%), 자사고(60.5%), 일반고(56.9%) 순이었다. 자신의 학교 유형이 도움이 된 이유에 대해 자사고 학생 중 '내신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1명도 없었지만, 일반고는 33.7%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라 선택하는 수시모집 전형유형이 다른 이유로 해석된다.

한편 학생들은 올해 수능 전까지 공부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를 꼽으라는 질문에 남학생(51%), 여학생(66%) 모두 '핸드폰'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걱정과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게임', 여학생은 '체력'을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이선영(46) 씨는 "일반고도 수능을 주로 준비하는 정시학교와 학생부를 준비해 수시모집에 집중하는 수시학교로 나뉘는 사실을 최근야야 알았다"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각 고교별 대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별 대입 지원 결과는 현재 각 고교의 입시결과 정보와 각 대학 신입생 정보를 활용하면 볼 수 있으나, 고교나 대학의 서열을 드러낼 수 있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고교별로 입학 대학 명칭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전형 유형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세월호 참사에도... 해양어선 관리부실 여전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총 9413건  
종합대책에도 해양사고 매년 증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해양어선 안전관리가 부실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어선사고를 2012년 대비 50%(580건)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오히려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가 총 9413건(1만664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708명(세월호 304명 포함), 실종자 223명, 부상자 1415명 등 총 234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연도별 사고 현황의 경우 2013년 1093건(1306척), 2014년 1330건(1565척), 2015년 2101건(2362척), 2016



년 2307건(2549척), 2017년 2582건(2882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용도별 사고 현황을 보면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의 사고가 총 2905건(342척), 어선의 사고가 총 6508건(7222척)으로, 어선의 사고가 해양사고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선의 경우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인해 척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고는 더욱 늘어나 지난 2013년 727건에서 2015년 146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경의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와 선박 안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계속해서 주문해 왔지만, 정부의 정책이 무색할 만큼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어선 사고는 물론 해양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수산업계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선원제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경로로 전락하고 있다"며 "선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서 불법적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